민주 광주·전남 시도당·지역위원장 공모 주목

19곳 이번주 시작… 광주 동-서을 경선 가능성

친노-반노, 주류-비주류 세력대결 양상 관심

민주통합당이 5·4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광주 8개 지역위원회위원장, 전남 11개 지역위원회위원장 공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주·전남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모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시·도당위원장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결과를 각 50% 반영해 선출한다.

지역위원장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경선 여부를 판단해 선출하게 된다.

지역위원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역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이 인정받는 분위기인 가운데 현역 지역위원장이 없는 사고 지역위원회인 광주 동구와 서구을 지역위원장은 경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현재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병완 시당위원장은 동구 지역위원회 개편과 관련, 최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무소속으로 있는 박주선 의원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위원장도 "시당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검토해보자"고 답변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정기 전당대회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당원 등 지역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 주류와 비주류 진영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당위원장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치 세력의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또한, 광주·전남지역도 친노(親盧), 반노(反盧), 주류, 비주류 구도가 형성돼 있어서 이들 세력 간의 대결양상도 주목된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은 장병완 현 위원장의 재추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혜자(광주 서구 갑)의원이 시당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은 이윤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인사의 '과거 부정·부패 행적'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차기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개편차원에서 선출되는 만큼 세력 간 대결양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오늘 출범

분과별 위원회·의제 개발

광주시의회 2013년도 정책네트워크가 5일 출범한다.

광주시의회는 5일 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시의회는 올해 새로운 의정현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의제개발을 위해 지난해 30명의 위원 중 9명을 재위촉하고, 나머지 21명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별로 선임된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는 1년 동안 17회의 분과별 위원회 개최와 의제개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지정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제6대 후반기 시의회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구호 아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통합정치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제시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에 매진하고 있는 시의회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파트 5억 차익 투기 아니냐"
"학자 출신 현장경험 거의 없다"

국회, 조윤선·방하남 인사청문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내정자의 여성정책 역량, 재산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우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약 50억원을 신고한 조 내정자에 대해 반포 아파트 투기, 보유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 내정자는 42평짜리 반포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22평짜리 반포아파트를 2002년 2월 2억7천700만원에 사들여 6년 뒤 8억 4천만원에 팔아 5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가 여성정책 분야에 별다른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내정자가 지난해 2월 모친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장관에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배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한, 조 내정자의 남편에 대한 '현직 예우'도 거론됐다. 조 후보자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정위로부터 제소받은 기업들을 변호했고, 같은 시기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방 내정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 및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방 내정자는 고용복지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현장경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행정경험이 없어서 조직 장악, 정치력 발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있다"고 질타했으며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내정자는 "비정규직 등 고용 정책적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두루 듣고, 제가 모자라면 현장을 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 내정자는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넥타이 고쳐매고 머리 매만지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왼쪽)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각 넥타이를 고쳐매고 머리를 매만지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만의 조현오 보석' 사법부 신뢰 훼손"

국회 법사위서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민주통합당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을 중심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자마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2년간의 심리 끝에 법정구속을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후임 판사가 업무개시한지 불과 3일만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이 무슨 고무줄 놀이냐. 이래서는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도 "유족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됐다"며 "보석 결정이 자칫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조 전 청장의) 항소 이후에 항소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단계에서 정기인사가 있다 보니 생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며 "항소심 본안 재판이 예정돼 있으니 적절한 처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자치 조례 재의 요구안 등 심의 주목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가 5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4일까지 10일 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주목된다.

특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지난 1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의 요구안의 상정됨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시민의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조사·권고의 역할을 할 중립적 기구인 '인권 옴부즈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와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교육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한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요 승인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두관 독일행… 손학규와 '연수 동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독일 연수차 오는 11일 출국한다.

김 전 지사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베를린 자유대학의 6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이 4일 전했다.

이 대학은 지난 1월부터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이 연수 중인 곳으로, 교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 중인 손 고문과 달리 김 전 지사는 학교 밖 숙소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연수 기간에 독일의 지방분권 시스템과 통일 모델, 생태·환경 분야, 인근 유럽 국가들의 복지체계 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지사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 문재인 전 후보의 지원자 역할을 맡았던 그는 해외연수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암중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출국에 앞서 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리는 동북아경제문화협력재단 창립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송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음)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급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매매가 6억 8천(융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8천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8만원 년수익율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동아공인중개사
011-647-4747
유동화자산매각
▶순천시 조례동 587-4의 2필지
▶에코그라드 호텔
▶토지2008㎡(607평)
▶건물22759㎡(6,684평)
▶감정가격 450억4천
▶매매가격 220억
문 의 : 011-684-3886